

인문학의 두터운 쟁론 이끌 계간지들

《당대비평》《신인문》《세계사상》 등 다양한 특집으로 심도 깊게 논의

인문학의 부흥을 꾀하는 다양한 형식의 인문교양지들이 쏟아져 논단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인문학·사상·사회과학 전문지를 표방하는 계간지들은, 그간 문학지가 이끌어 왔던 인문학계의 지형도를 바꾸어 놓을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 '열린'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이 시대 인문학의 쟁점을 밝히며, 학제간의 벽과 학문과 현실간의 벽을 허물자는 점에서 이들은 맥락을 같이한다. 이 인문교양지들을 통해 축적한 학술적 깊이와 넓이를 학술 단행본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들은 여름 창간호에 이어 다양한 특집의 가을호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과학, 인문학의 당대성

인문과학 계간지들의 창간 봄은 문학계간지 중심으로는 사회과학, 인문학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폭발적인 대중문화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사회·문화·역사를 모두 감싸안을 수 있는 담론 체계와 당대성을 밝히는 것이 이들의 작업 목표. 그야말로 '총론과 각론이 고루 담긴 특집'이 기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8·15를 즈음해 창간호로 선보인 당대(대표 문부식)의 《당대비평》은 본격적인 사회문화비평서로 인문·사회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인으로 영입된 소설가 조세희씨가 '무산된 꿈, 희망의 복원'이라는 제목의 창간사를 통해 입장과 지향점을 밝힌다. (자유와 평등을 넘어 사회적 연대로)라는 특집으로 사미르 아민의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하여'와 디트마 뒤에, 갈 헤르만 차텐의 '반동과 환상 사이에서' 오다 마코토의 '변화하는 아시아와 시민연대'를 실어 세계질서의 변동추이를 분석하고, 자유주의의 한계와 사회적 연대를 모색(최연구)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한국을 지배하는 야만〉이라는 기획에서는 홍윤기씨의 '부산권력과 권력의 낭비구조', 조연현씨의 '한국 정치의 왜곡 행로와 97대선의 반성적 성찰', 장상환씨의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갈등의 본질', 김형기의 '노동법 개정 이후의 노사관계 전망과 노동계급의 대응' 등을 다루어 정치·경



제·문화·사회의 현안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동문선(대표 신성대)에서 펴내는 《세계사상》은 프랑스의 월간 문예지 《마가진 리테레르(Magazine Litteraire)》와 특약을 맺어 현대 철학의 중심지 프랑스에서 발신되는 따끈따끈한 문예이론과 역사철학을 번역 출간하는 강점을 지닌다. 편집위원은 김상환·김성도·변기찬·임옥희·정재곤·현택수씨 등 외국문학통들로 구성.

가을호는 정신분석학과 라캉을 특집으로 다뤘다. '정신분석의 문제 (장 베르트랑 퐁탈리스) 페티시즘과 이데올로기 (장 보드리야르) '프로이트와 신화 (디디에 앙지외) '프로이트에로의 회귀에 대하여' '전지전능한 아버지' 등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다루고 '서로 교차된 인물들:라캉과 알튀세르' (베르트랑 오지발), '라캉언보' (알랭 아벨로제) '라캉의 구조주의 측면' (정재곤) 등을 실었다. 그밖에 페미니즘과 영화에 도입된 정신분석학에 대한 글도 있고 미셸 세르와의 대담도 실렸다.

〈백루한 르네상스〉로 창간호의 포문을 열고 〈한국 모더니티, 혼돈 속의 길찾기〉라는 특집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대성 논의를 편민음사(대표 박명호)의 《현대사상》도 가을호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호는 〈'오늘, 여기'의 문화연구, 그 쟁점과 미래〉를 기획특집으로 한다.

이동연의 '한국 문화연구의 과정과 실천토픽들' 관상 쉼의 '아직은 탈식민지시대가

인문학의 부흥을 꾀하는 다양한 형식의 계간지들이 논단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이들 계간지 발간으로 문학지 중심의 인문학계가 인문교양지 중심으로 지형도를 바꿀 전망이다. 한편, 당대성을 지향하는 편집방향 때문에 특집기획이 엇비슷하거나 필진들이 겹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된다.

아니다:문화연구에서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문제' 김현미의 '페미니즘과 문화연구는 행복하게 만나는가?' 송도영의 '1997년 한국 인류학식 대중문화연구 산책' 김성기의 '문화 퍼플리즘의 그늘' 등 다양한 글이 실린다. 연속기획 〈오늘의 지성을 찾아서〉는 김영민·김현에 이어서 김용호 교수와의 대담이 실리고 '라캉학과와 클라인 학파의 대화'-정신분석적 문화연구의 기본관점과 방향모색을 위하여'도 실려 정신분석학 비평의 주요 쟁점도 다루고 있다.

교수신문사(대표 이영수)에서 펴낸 《열린 지성》은 여러 매체에 발표된 글 중에서 좋은 글이나 우수논문을 엄선하여 게재하는 채수록잡지다. 편집인 장희익(서울대 교수·물리학)을 비롯해서 120명의 원고선정위원이 쟁점을 갈무리하는 이 책은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좋은 글, 지나쳐버린 좋은 글들을 되새겨보고 복원할 기회를 제공한다. 가을호는 인문분야 논단에 '서구와

다른 유교적 현대화는 가능한가(송영배) '중국의 협상술'(채희준) '숲의 역사'(주경철) '민족과 민족문제'(박병규) '경제해야 할 박정희 신화'(박홍규)등을 실었고 과학기술분야, 문화예술분야의 글들도 담았다.

다양한 잡지, 기획력의 차이가 관건

내년부터 계간지로 선회할 한길사(대표 김연호)의 반년간지 《신인문》은 다음호 특집을 '몸'으로 잡았다. '몸에 대한 이념사' '몸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 '공학적 측면에서 본 몸' '몸의 기호학' 등 다각도로 접근할 예정이다. 전권 특집이 특징인 《신인문》은 창간호에서 〈문명론〉을 다루 책 전체를 단일한 주제로 심도 있고 다양하게 다뤘다는 평을 받았다. 김상봉·김호기·윤형식·이정우·이필렬·최성만·한정숙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가 새로 창간되어 '유교와 자본주의' '전통과 현대의 예술' '불교와 21세기 한국' 등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렇듯 의욕적으로 발간된 계간지들은, 사상과 학문을 다루는 동시에 대중적인 계간지 역할까지 맡겠다는 이중적인 의욕 때문에 되레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대중에 영합하는 것을 피하면서 지식인과 대중이 공존형성의 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이라는 덕담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몇몇 잡지는 몇년 내에 도태되거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슬며시 나온다.

또다른 문제점은 한꺼번에 쏟아진 계간지들이 당대성을 지향하는 편집방향이 같아 보니 그 특집기획도 엇비슷한 것이 많고, 필진 역시 겹치거나 태부족한 형편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대사상》 책임편집을 맡고 있는 김성기 교수(전주한일신학대 사회학과)는 "매체가 자기 색깔이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기획력의 차이"라고 강조한다. 이들 인문교양지들이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쟁점과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낼 때 우리 인문학과 인문학술 출판계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정미 기자